

사진이 미래를 향하는 몇 가지 방법들

2018 서울사진축제 특별전

Walking, Jumping, Speaking, Writing.

境界を、ソウルを、世界を、次元を.

경계를, 시간을, 세계를, 차원을.

신체는, 링크는, 언어는, 형태는.

SeMA 창고, 플랫폼창동 61

2018.11.1-11.30

서울사진축제는 약간 수수께끼 같은 행사다. 그것은 한 도슨트의 말처럼 이 행사가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눈높이를 높이는 전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만 서울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처럼, 또는 그저 이 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사진축제 또한 과거의 족적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일관된 마스터플랜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사진축제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아카이브’ 섹션에 2014 년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사진축제 웹사이트가 링크되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또 그때 당시의 ‘아카이브’ 섹션이 있어서 2012 년과 2013 년 전시 소개를 볼 수 있다.¹ 그런데 서울사진축제가 시작된 것은 2010 년부터다. 이것은 그리 먼 과거가 아니라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지금은 철거된 서울시립 경희공미술관 벽면에 “미래의 고고학자가 발굴하게 될 서울”이라는 문구가 걸린 당시의 전시 설치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여기저기 흩어진 기록들을 뒤적어 보면 자칫 미래의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십 년은 모든 맥락이 망각될 만큼 긴 시간은 아니다. 2010 년은 “세계디자인수도”라는 기묘한 타이틀을 획득한 서울시가 도시 홍보와 브랜드 구축에 매진하던 때였고, 서울사진축제 역시 “서울에게 서울을 되돌려주다”라는 주제로 ‘서울’을 전면에 내세웠다.² 그러니까 이때의 ‘사진’은 서울을 비취 보이는 일종의 거울처럼 호출되었다. 그러나 매체와 장르를 불문하고 이때의 ‘축제’들은 서울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일종의 장식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조명을 켜 것처럼 얼굴을 밝혀 준다는 화장품 광고의 그래픽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2010 년 서울의 축제들은 그런 식으로 점멸하면서 끊임없는 재생과 재건 기술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의 시간을 밝혔다.

이 같은 조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과도기인 서울에 매여 있다는 것이 서울사진축제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원래 사진은 도시와 함께 성장한 매체로, 기계화된 도시와 기계적으로 네트워크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계적 시선으로 사람들을 매혹했다. 그런데 과거의 자신을 산업시대의 잔해로 인식하고 좀 더 스마트한 업데이트를 추구하는 도시에서 사진은 무엇이 되는가? 한편으로 사진은 자신의 오랜 피사체인 현대 도시와 더불어 ‘전통으로서의 현대’라는 새로운

범주로 재편성된다. 실제로 2010년대 초중반의 서울사진축제는 20세기 서울을 역사적 유산으로 구축하는 일에 협력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전통을 보존하는 전통적 시점의 미디어라는 이중의 의미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로서의 사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진은 도시와 더불어 스마트한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물리적 세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시 물리적 세계로 되먹이는 매끄러운 순환에 통합된다. 구글은 2017년부터 AI 기반으로 사진 이미지의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구글 렌즈’를 런칭하고,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이 본 것을 검색하고 당신 주변의 세계를 훑어보고 일이 되도록 도와줄 것 … 컴퓨팅 기술은 ‘카메라의 시대’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단언한다.³ 여기서 사진은 세계를 디지털화하는 수단이자 그렇게 디지털화된 세계의 네비게이션 도구가 된다. 지금도 사람들은 얼굴 인식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스트리트 뷰 사진으로 길을 찾는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도시를 누비기 전에, 도시의 구석구석은 이미 사진으로 찍혔고 찍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결정적 순간’의 의미를 반전시킨다. 사진 찍히지 않은 날것의 세계에서 순간적으로 무언가 독특한 것이 눈길을 사로잡고 셔터를 누르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사진 찍히고 사진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어째서인지 사진이 실패하거나 누락된 지점이 일시적으로 눈을 마비시키면서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2018년 11월 KT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네트워크가 먹통이 되었을 때 홍대 앞은 한시적으로 그런 구멍이 되었다. 건물 이름은 아는데 찾아갈 수가 없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고, 거리로 나와 욕을 내뱉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 습관은 차단되고 시야는 축소되고 역량은 감퇴한다. 전기의 빛만으로는 밝힐 수 없는 이 기묘한 암흑은 도시의 작동이 디지털화되기 이전의 “1980년대”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재난”으로 인식된다.⁴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 비로소 자동적이고 거의 자연적인 것으로, 또는 잉여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스마트함의 작동이 의식 속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밤의 경험을 포착하고 그 효과를 재생하는 사진들을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작동하는 사진들과 대비하여 절단된 사진이라고 부르자. 이것은 사진의 분류이기 이전에 사진을 둘러싼 관계의 문제다. 절단된 사진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보는 사람을 밀쳐낸다. 그것은 시야의 확장을 약속하는 대신에 본다는 것의 근본적인 한계와 직면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본다는 것 이외의 다른 행위를 촉구한다.

전통적 사진이 스마트한 관계망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스마트한 사진이 스마트해진 세계의 재현으로서 전통적 사진의 프레임 속에 놓일 수도 있듯이, 관점에 따라 스마트한 사진이나 전통적인 사진을 절단된 사진처럼 경험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혼선은 동시대 서울의 일부이자 그 반영으로서 그동안 서울사진축제의 전시 기획과 관람 경험을 분열시켰고, 그 부정함면은 “멋진 신세계”라는 주제로 낯설게 변한 지금의 세계를 다루는 2018년 행사에서 꽤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주관한 본전시와 외부 기획으로 김익현이 구성한 특별전은 오늘날의 ‘멋진 신세계’와 그 속에서 사진의 위치에 대해 사뭇 대조적인 접근을 취한다. 북서울미술관의 본전시는 원전 기술로

대표되는 통제 불가능한 기술 발전으로 역사와 자연이 교란된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것처럼 세계를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미디어 기술의 불투명성에 대해 성찰한다. 이때 전시장은 이미지를 매개로 관객의 시야를 확장하는 특권적인 관조의 장소로 주어진다. 관객은 세계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세계를 보고 그에 관해 생각한다. 반면 SeMA 창고와 플랫폼창동 61 에 분산된 특별전은 여러 개의 동사들을 나열하지만 ‘본다’와 ‘생각한다’만은 언급하지 않는다.

‘걷다’, ‘뛰다’, ‘말하다’, ‘쓰다’. 이것이 특별전이 전면에 내세우는 동사들이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걷고 뛰는 것,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쓴다는 것.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서술격들은 그에 연합될 수 있는 여러 목적격과 주격들과 병치되어 전시 제목을 이룬다. “Walking, Jumping, Speaking, Writing. / 境界を、ソウルを、世界を、次元を. / 경계를, 시간을, 세계를, 차원을. / 신체는, 링크는, 언어는, 형태는.”이라는 제목은 하나의 진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진술을 생성할 수 있는 4x4 의 행렬로서 2018 년 서울 또는 서우루(ソウル)에서의 사진 전시를 예워싼다. 여기서 사진은 자기 동일성을 복제하고 반복하면서 관객의 눈을 사로잡고 그를 한 자리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과 차이를 가로지르는 운동 속에서 관객이 함께 움직일 것을 촉구하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생성될 새로운 시간을 기대한다. 간단히 말해 ‘사진의 미래’라고 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시대적 변환이라기보다 이미 턱 밑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틈새를 찾는 작은 움직임들의 집합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접근은 카노 슌스케, 사코 테페이, 우에다 야야로 이루어진 ‘더 카피 트래블러스(The Copy Travelers)’의 작업에서 직설적으로 수행된다. 이들은 사진을 ‘카피-서사이즈(copi-xerize)’ 다시 말해 끊임없는 ‘복제-운동’ 속에서 작동시킨다. 세계의 일부가 이미지로 복제되고, 그것이 세계 속에서 움직이고 겹쳐지며, 그렇게 변형된 세계의 일부가 다시 이미지로 복제된다. 그 운동은 영상의 형태로 기록될 수도 있고, 이미지의 연쇄로 나열될 수도 있고, 사물 또는 공간의 형상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운동의 산물은 전시 속에서 단순한 보기의 대상이 아니라 운동 매뉴얼을 포함하는 일종의 연습장처럼 재구성된다. <은밀하게, 살금살금, 서울 걷기>는 작가들은 실제로 사진-복제-운동을 가동시키며 서울의 풍경 속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관객은 스크린 앞으로 길게 펼쳐진 작업대 또는 캔워크 같은 이미지 평면과 그 위에 잠시 정지한 공 모양의 이미지 조각들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미 일어났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움직임들을 상상할 수 있다.

여기서 작가의 움직임, 그 결과로서의 이미지, 그것을 보는 관객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정지된 이미지는, 심지어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해도, 작가가 움직임 속에서 체험한 것을 온전히 전달하지는 못하며 더욱이 그 움직임의 전파를 강제하지는 못한다. 관객의 몸은 전시장에 갇혀 있다. 지난 몇 년간 촬영된, 가깝다면 가까운 과거의 사진들을 보여주는 김주원의 작업은 이 사실을 집요하게 상기시킨다. <과거가 과거를 부르는 밤>에서 이 사진들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던 작가 자신의 시점에서,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차 속에서, 무엇이 셔터를 누르게 했고 무엇이 파일을 다시 꺼내게 했는지, 셔터가

눌러지는 순간 카메라의 앞과 뒤에, 그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무덤덤한 설명과 함께 회상의 무작위적 시간 속으로 펼쳐진다.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이 사진-에세이-영상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꽤 추운 경험이다. 관객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추진력을 갖지 못하는, 그럼에도 한 번에 한 방향으로 어디론가 움직여야 하는 결연한 방향을 지켜보고, 그에 휘말리며, 그럼에도 그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 놓이는 이 머나먼 위치는 지구 반대편으로의 여행을 구글 어스로 반복하는 이민지의 작업에서 환상적으로 증폭된다. 오래 전에 지나쳐 갔던 먼 곳의 이미지에 손가락을 대고 끌어당길 때,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의 일부는 미처 당겨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뒹켜진다. 작가는 장거리 비행기 여행으로 신체가 시차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트랙(jetlag) 증후군에 빗대어, 또는 그저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뜨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랙(lag)’ 현상처럼, 이를 ‘사이트-랙(sight-lag)’라고 칭한다. <필드:트립>은 이처럼 이미지와 그것을 보는 대상이 시공간의 동일한 차원과 좌표에 겹쳐지지 않고 어긋나는 간격 속으로의 여행이다. <필드:트립, 세션들>의 여행 일지에서, 탐험자는 방향상실, 어지러움, 급기야 환각을 호소한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북위 63-64 도 서경 15-16 도 사이의 극지방 근처를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터치 스크린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진 것처럼, 또는 간격을 가로지르는 불가능한 뒹굴을 통과한 것처럼, 그가 묘사하는 풍경은 북위 33 도 동경 126 도의 따뜻하고 작은 섬으로 옮겨간다. 이 이상한 여행의 시각적 보충물로서, 사진들은 저마다 특정 좌표가 태그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도 정박하지 않는다.

이미지의 평면에 겹쳐지는 물리적 세계의 시공간적 두께는 오연진의 탐구 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이민지가 평면에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시공간을 상상하고 그 내부로 뛰어든다면, 오연진은 평면에 시공간의 그림자를 투영하고 그것을 외부에서 관측한다. 작가는 포토샵에서 이미지 레이어를 쌓고 변형하는 과정을 물리적인 인화의 과정으로 변환하여,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새로운 매개변수들을 삽입해볼 수 있는 시공간의 폭을 확보한다. 다양한 테스트 패턴들이 거리를 달리 하거나 휘어지거나 겹쳐지면서 인화면에 잔상을 남기지만, 그것들은 빛을 차단하거나 투과하는 마스크로서 시공간이 평면으로 변환되는 중간 과정을 제어하고 그 과정을 일부 드러낼 뿐이다. 관점에 따라, 이 얼룩무늬들은 포토샵에서 투명 영역을 표시하는 격자 패턴이 전시장 환경에 맞추어 나름의 의태를 시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투명한 것의 불가능한 그림자로서, 정해진 치수도 없고 엄밀히 색깔도 없는 신비로운 회색의 격자 무늬가 유도하는 상상적 공간이 있다. 인화지는 그렇게 유령 같은 공간을 포착하는 의외의 매개체, 또는 문자 그대로 미디어-영매로서 재발견된다.

이처럼 사진을 통해 또는 사진의 곁에서 이상한 공간을 발견하고 탐사하는 시간이 SeMA 창고 전시에서 관객의 눈 앞에 상연된다면, 플랫폼창동 61 전시는 어느 정도 관객 스스로 그와 같은 시간을 가동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벽으로 구획된 전시장 공간이나 전시를 소개하는 월텍스트, 리플릿 같은 관습적인 전시의 구성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들은 설치 당시의 시점에서 아직 개막하지 않은

서울사진축제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사진책의 광고로서 플랫폼창동 61의 외부 공간에 내걸린다. 전시를 보러 온 관객의 시점에서 그것들은 이미 개막한 서울사진축제의 내용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습적인 이미지들 사이에서 이 사진들은 의외로 눈에 띄지 않는다.

독립기획자 이성민과 그래픽디자이너 권영찬이 협업한 <표본들>은 지난 세기 서울에서 '미래'를 꿈꾸었던 도시 계획의 기록 사진들을 가로등 배너 광고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들과 지하철 고가도로로 둘러싸여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창동역 환승주차장 일대에서,⁵ 지금 낡은 것들이 새롭게 임박했던 때의 모습은 낯설지만 익숙하게 다가온다. 이를테면 플랫폼창동 61 옆에는 오래되어 빛 바래고 흐려진, 아마도 원래 컬러였겠지만 지금은 거의 흑백처럼 보이는 창동민자역사 조감도 입간판이 커다랗게 걸려있다. 그것은 <표본들>의 흑백 사진들뿐만 아니라, 어딘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폭죽들의 사진들을 나열하는 압축과 팽창의 <울트라 바이올렛, 더스트, 메모리즈 광고>를 묘하게 닮았다. 결국 이 '전시'를 보는 경험은 그 일대의 도시 환경과 그 속에 삽입된 이미지들, 그 사이를 무심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을 다시 보고 그에 침전된 시간의 반복되는 패턴을 되감아 보는 일이기도 하다.

계획된 미래들이 얼마나 실현되든 간에, 다시 몇 년이 지나서 2018년의 서울사진축제를 설명하는 것은 지금 2010년의 서울사진축제를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과거의 사진과 지도를 늘어놓고 그때 여기에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라고 거기 없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상상한다. 날씨가 아주 추웠고, 광고판이 잔뜩 있어서, 사진을 잘 찍어 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말들이 푹푹 끓어져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생각한다. 그것은 가능한 미래의 한 가지 판본이다. 또한 그것은 과거와 미래가 겹쳐지는 현재의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하다. 그러나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다음에는 조금 더 가볼 수 있다. 해마다 겨울이 돌아오지만 똑같은 계절은 아닌 것처럼, 조금씩 쌓이는 오차 속에서 시간은 흐른다.

윤원화 / 시각문화 연구자.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 『1002 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역서로 『광학적 미디어』, 『기록시스템 1800/1900』 등이 있다.

¹ <서울사진축제>, <http://seoul-photofestival.com>.

² "그 시절 당신은 어디에서 무얼 했을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 공식 미디어 플랫폼,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78170>.

³ Aparna Chennapragada, "The era of the camera: Google Lens, one year in," <The Keyword>, Google official blog, Dec 19, 2018, <https://blog.google/perspectives/aparna-chennapragada/google-lens-one-year/>.

⁴ "응급실 2 시간 폐쇄, 의사 호출 방송 '80년대 병원 같았다", <중앙일보> 2018년 11월 27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158002>.

⁵ "공공 사진미술관, 서울 창동에 설립 추진," <한겨레신문> 2015년 6월 19일자,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96691.html; 2016년 4월 29일자; "창동·상계 45층 '창업+문화
산업단지' 설계 당선작 발표," <내 손안에 서울> 2018년 5월 28일자,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59937>.